

전주 덕진공원, 전북 대표 관광지로 조성

천년사랑독길·연화전망대 등 2019년까지 80억원 투입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관광벨트 구축

전주 덕진공원을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지난 28일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제2의 관광거점을 북부권에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생태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덕진공원 일대를 전북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덕진공원 일대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스토리를 기반으로 재조명된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또, 북

부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덕진공원과 가련산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도 구축된다.

전주시는 특히 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한 덕진공원 일대의 생태자원 복원 및 네트워크화를 위해 자연생태환경의 원형을 고려한 공간 정비에 나서는 한편 생태환경 특성에 기초한 체험공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공원 접근성 및 이용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덕진공원의 동선 체계를 구축하는 등 덕진공원 기능 다양화를 통해 공원 기능을 재설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천년 덕진지에 피어난 순수한 사랑’이란 개발테마를 바탕으로 천년 덕진지의 사랑을 테마화한 역사문화의 발굴과 생태자원을 특화하고, 덕진지와 연꽃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을 비롯한 전주한옥마을, 전북도립국악원, 오송제 등 인접 문화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도입시설로는 곡선형 덕진연꽃독길이 천년사랑독길로 조성되며, 연화전망대와 천년카페 정자, 수변무대 등 재개발, 연꽃 군락지를 둘러볼 수 있는 삼대극 은하수길 조성 등이 추진된다.

시는 특히 덕진공원을 야간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역특화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3D위더스스킨 기반

한국형 퓨전뮤지컬 ‘실록을 탐하다’를 2017년 5월 U-20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공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최근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를 열고, 천년사랑독길 사업 등 관광기반사업과 관광진흥사업 등을 최종 확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은 연꽃 외에는 역사문화관광지의 특성이 부족한 덕진공원을 북부권 일대 역사문화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라며 “덕진공원이 지닌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생태문화관광의 명소, 야간관광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휴일에도 농기계 빌려드려요”



진도군 영농철 맞아 11월까지

전날 출고하는 예약 제도 호평

진도군이 영농철을 맞아 농가 편의 향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국·공유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일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문을 열고 있다. 군은 특히 새벽 같이 농기계를 빌려오려는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전날 오후 5시 출고하는 예약 제도를 함께 운영하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콤바인, 트랙터 등 임대 농기계는 진도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누구나 임대 사용이 가능하다.

9월 현재 진도군은 89종 437대를 농기계를 갖추고 군내면 송산리와 임회면 용호리, 조도면 창유리 등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임대·활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이형규 전북도 정부부지사

사직서 제출 내달 4일 퇴임

이형규(63)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2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 4일 퇴임식을 한다.

민선 6기가 시작한 2014년 7월부터 전북 도정의 한 축을 맡은 이형규 부지사는 그동안 새만금사업 SOC 구축·세계잡버리대회 유치 추진 등 경제·문화 부문에서 업무 성과를 이뤘다.

전북도의 행정부지사(2003~2006년)와 정부부지사를 모두 지낸 이 부지사는 퇴임 후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이나 특임교수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해상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이 부지사는 행정고시(1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총리실 총괄조정관,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경제회 이사장, 전주대 창업지원단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을 지냈다. 전북도는 이 부지사 후임으로 경제전문가를 물색 중이다. /연합뉴스

부안·고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교류전시회 ‘같이’展

내일까지 부안예술회관 전시실

부안·고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교류전시회 ‘같이’展(展)이 30일까지 부안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사진>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같이’전은 동호회와 동호회과의 관계맺음, 지역과 지역의 관계맺음을 통한 창의적인 동호회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기존의 전시 형식을 탈피해 동호회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열리고 있다.

전시회는 ‘동호회! 예술우산을 쓰다’를 슬로건으로 부안·고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21개 동호회 회원 226명이 우산에 대한 다양한 추억을 스토리텔링화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동호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공예, 미술, 사진, 서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100여점을 전시 중이다.

김성구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장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교류전시회를 통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동호회원의 단합으로 이뤄낸 이번 교류전시회를 통해 문화예술이 지역민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지역문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고훈성기자 ghs@kwangju.co.kr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완도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허용

‘바다의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일

반음식점이나 생활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그동안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신축이 제한돼 현지인의 농가 주택이나 소규모 농어업 관련 시설만 건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섬 지역 관광객 편의시설 부족 등 해양 서비스산

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정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등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단 지목이 임야가 아닌 곳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 미만으로 한정했다. 또 관광지·관광단지·관광농원에서 건축하는 숙박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외 지역 생활숙박시설 건축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오정민 완도군 기획예산실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일반음식점과 생활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불편해소와 규제개혁을 위해 관련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하반기 화백 작품전

내년 1월까지 전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내년 1월까지 박물관 장미갤러리에서 ‘시간의 흔적’을 주제로 지역 출신의 하반기 화백 작품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작고한 화백은 7세부터 수묵화를 그렸고, 민족과 자연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려 개인전 50차례, 해외 초청 10차례, 국제전 150차례를 가졌다. ‘동양의 피카소’로 불린 화백은 몇 년씩 깊은 산중에 머물며 정자에 전념

하기도 했으며 전북도 내 명소 곳곳을 그림으로 남겼다.

이번 작품전에는 가을을 유추하는 정물화, 풍경화와 대표작 ‘거산’ 등 23점이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작고하는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화백의 열정을 담은 작품을 무르익는 가을과 함께 감상하는 기회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미갤러리는 2013년 6월부터 1층에서 화백의 화구 전시하고 관련 영상을 상영한다. /군산=박금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완도 대표할 관광 기념품 공모전

내일까지 관광정책과에 접수

완도군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대표할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완도의 지역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기념품을 제작판매해 500만 관광객시대를 열기위해 30일까지 완도군 관광정책과에서 작품 접수를 받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이번 공모전은 완도의 특징과 스토리를 담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완도 관광지와 전북, 김, 미역, 다시마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작물 1인(업체당) 2작품 이내 출품이 가능하다.

완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061-550-5432), 또는 완도군 홈페이지(www.wand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신주택/구창고) 매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적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 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층층가능 매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일야 2,187㎡ 주택 96㎡ 공적75㎡ 점포26㎡ 매2억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생산지 매 25억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동정리 담 7,966㎡ 4차선국도변 투자유망 매9억
4.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전 배과수원 7,934㎡ 혁신도시 근거리 투자유망 매 4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점 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6.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
7. 나주시 노안면 담 4,000㎡ 2차선도로점 계획관리지역 공장, 창고 적합 매 5억2천만원
8.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전 24,795㎡ 2차선도로변 교차로 생산지 지역 전월주택지 적합 매 18억
9.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담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 2천만원
10.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 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팬션 광주캠과 화순 은천간 땅 1516㎡ 건물 335㎡ 4억5천
-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장성캠 11908㎡ 위치와 경관 좋음 5억7천
- 신축 남향 주택 나주시 봉황면 땅 404㎡ 집 100㎡ 농림 5천, 1억3천
- 신안군 지도읍 관리지역 전 13662㎡ 농장·귀농·태양광 적합 1억
- 화순군 도곡면 드림캠 3694㎡ 전원주택 개발적합 4억7천
- 담양군 대덕면 인석리 993㎡, 599㎡, 665㎡ 평당 55만원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부근 경관좋은 3840㎡ 4억7천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월드컵도 부근 2081㎡ 해안가인접 1억 2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무진중 건너 소빙도로 149㎡ 상가주택적합 1억5백
- 월산동 다구리 주택 대지 206㎡ 6세대 매도 4억
- 신안군 지도읍 5억 국유지 26823㎡도 함께 있음
- 두암동 동신대학 부근 2중주택지 1594㎡ 다세대 등 적합 12억5천
- 공성초교를 광산구 송학동 1312㎡ 고속도로에서 5분거리 1억4500
- 고흥군 남양면 신흥리 3838㎡ 과수원·특용작물 적합 4천만원
-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29927㎡ 은행 8억5천, 평당 30만원
- 발장기 등 적합 장성군 북이면 땅 2667㎡ 건물 150㎡ 매도 3억3천
- 화순읍 계소리 대지와 전 840평 산 2777㎡ 투자에 양호 2억2천
- 담양군 봉선면 국도점 4489㎡ 요양시설등 적합 8억2천

상가건물

- 유동 원복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복5, 투룸7 안접 매도 7억
- 대의동 동부경찰서 부근 대지 235㎡ 건평295평 18억
- 광천 타임빌 부근 화정동 땅 661㎡ 7층 건물 3056㎡ 21억
- 월산 파출소 서 총정로방향 80m 3층 건물 땅 132㎡ 건물 147㎡ 1억9천
- 월산동 소빙도 대지 100㎡ 건평 114㎡ 리모델링해야함 1억3천
- 중흥동 8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 918㎡ 건물 1853㎡ 매도 15억5천
- 남구 월산동 소빙도로 대지 149㎡ 건물 177㎡ 식당적합 3억

임대

- 게임동 287㎡ pc방 적합 3천에 300 사무실 143㎡ 5백에 45
- 금당 4기 지하할매점 310㎡ 의원 한의원 3천에 300 3천에 25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억, 급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기한 - 9월 30일까지
- 관광특구로 관광지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완전 파격 상가 임대

나주혁신도시 호수공원인접 신축상가

-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과 부영아파트 인접
- 상업지역으로 시비권없음
- 6층건물중 3층 3칸 (약200평)
- 사무실, 식당, 노래방등 전업종가능
- 월임대료 1년간 무료.

문의전화

010-3782-7360

광교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